

2014. 6. Vol 229

충북의정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충청북도의회

<http://assem.cb21.net>



화인 (火印)

어린 목숨들을 추모하며

그 곳에 있을 교사인 나는
가만히 그 자리에 있으라고
시키는 대로 자리를 지키라고 말하며
애타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지켜보다
아이들과 함께 침몰했을 것임을 알기에

그 맑은 눈동자들 수많은 꽃봉오리들을
눈앞에서 잃어가는 상황이 생생하게 살아나
순종의 꿈쩍함이 가슴을 치는 시간
순하게 따르는 미덕이 무서워지는 시간

제 갈 길을 찾아보라기보다
무수히 갈 길을 가르쳐 주려고 한
잘못된 교사의 길이 뜨겁게 무서운 시간
가르침의 책임을 나에게 묻는 시간

무거운 책임에 무릎 꿇는 참회도 무상하여
뜨거운 눈물 차오르는 가슴에
그 자리에 꿈쩍 않고 있다가
나와 함께 수장되었을 어린 나의 눈동자들이
지울 수 없는 화인(火印)으로 가슴에 박힌다

5월 하늘에서
어린 목숨들이 다시 내게 묻는
스승의 길
사람의 길
마땅한 도리의 무게



김 은 속

- 1996년 <오늘의 문학> 신인작품상 수상
- 2007년 <제13회 내륙문학상> 수상
- 시집 『그대에게 가는 길』 『아름다운 소멸』 『손길』 등
- 산문집 『갈참나무 숲으로』
- 현재 청원 각리중학교 수석교사

Contents



괴산 산막이옛길 한반도지형

총 길이 10리의 옛길, 흔적처럼 남아있는 옛길에 덧그림을 그리듯 그대로 복원된 산책길로 수풀냄새 싱그러운 산바람과 산들거리며 불어오는 강바람이 만나는 길을 걸어보면 자연 그대로를 느낄 수 있다.

- 04 제9대 충북도의회 변화와 혁신의 여정 마치다
- 06 수도권 규제완화 규탄 및 지역균형발전 촉구
- 07 2013 회계연도 결산검사
- 08 지역균형발전·청원청주통합지원특위 활동 마무리
- 10 제9대 의회 주요 의정활동
- 17 상임위원회 활동
- 24 주요처리의안 (제330·331회)
- 26 의정활동 이모 저모
- 26 세무·건강상식
- 30 의정일기
- 31 편집후기

● 발 행 일 2014년 6월

● 주 소 (우)360-76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 F A X (043) 220-5119

● 구독신청 「충북의정」 구독을 희망하시는 도민께서는 상기의 우편 주소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행인 충청북도의회 의장 김광수

● 홈페이지 <http://assem.cb21.net>

● 발행처 충청북도의회

● 전 화 (043) 220-5123



충청북도의회는 제330·331회 임시회를 열고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주요 현안을 심의하며 제9대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제9대 충청도의회 변화와 혁신의 여정 마치다

「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 구현에 혼신의 노력

도민 복리증진·삶의 질 향상 위해 역동적 의정활동

지난 2010년 7월 7일 개원한 제9대 충청북도의회는 6월 24일 도청 구내식당에서 실시한 폐회연을 끝으로 ‘민선 5기’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 했다.

민선5기 도의회는 그동안 도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민경제 활성화를 꾀했고, 성장동력 확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여론 수렴과 찾아가는 현장중심의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도민을 섬기는 열린의회’ 실현을 기치로 내세우고 출발한 제9대 의회는 도민생활과 밀접한 민생위주의 의안심사와 조례 제·개정 등 활발한 입법활동을 벌이며 올바른 정책대안 제시와 함께 지역발전과 현안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도의회는 의정사상 처음으로 옥천에서 본회의를 개최하고 제천과 괴산에서 상임위원회를 진행하며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했고, 일문일답 도정질문을 실시해 ‘국정감사보다 낫다’는 호평을 받는 등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동안 도의회에서는 제291회 임시회부터 제331회 임시회에 이르기까지 411일 동안의 회기를 운영했다.

그 결과 668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5분 자유발언, 도정질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처리요구 640건, 건의사항 913건 등 총 1553건을 지적하고 시정토록 했다. 또 의원연구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현지확인을 통한 여론수렴 등 입법정책을 활성화하여 제8대 의회에



서 132건이던 의원발의 건수가 제9대 의회에서는 ‘충청북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9건의 조례를 제·개정했다. 이는 제8대의회보다 77건이나 많은 조례를 제·개정한 것으로, 도의회가 그동안 민생현안 해결에 정열을 쏟았다는 것에 대한 방증이기도 하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을 역행하는 수도권규제완화 중단 촉구 ▲농업인 소득안정대책 마련 촉구 ▲수도권 규제완화 재검토 및 지역균형발전 촉구 결의문 ▲국제과학벨트 충청권 조기조성 촉구 건의문 등 41건의 건의문·결의문 등을 채택해 대통령과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 9대 의회 의안처리 현황

구 분		계	조 례 안				예산·결산안			동의 승인	건의 결의	기타
			소계	의원 발의	도지사 제 출	교육감 제 출	소계	도지사 제 출	교육감 제 출			
접 수		679	426	209	154	63	39	21	18	78	41	95
처 리	원안가결	591	376	198	120	58	15	8	7	68	39	93
	수정가결	75	40	5	32	3	24	13	11	9	1	1
	부 결	2	1			1					1	
	기 타	11	9	6	2	1				1		1

특히, 지역현안 해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청원청주통합지원특별위원회’, ‘세종시 정상추진 및 발전특별위원회’ 등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했다. 이와함께 도의회는 현안들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위해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건의문·성명서 채택, 연구용역보고회, 각종 간담회 및 관련회의 등을 개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제330·331회 임시회

충청북도의회(의장 김광수)는 6월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330회 임시회를 열어「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규탄 및 지역균형발전 촉구 건의문」을 채택해 중앙부처에 이송하고 최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충청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등 각 상임위원회별 회부안건과 현안을 심사·의결하고 주요 사업현장을 방문했다.

또, 특위활동으로 청원청주통합지원특별위원회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개의회하고, 그동안의 활동결과를 마무리하는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6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실시한 제331회 임시회에서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을 심사·의결했다.

충청북도가 요구한 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78억원 많은 3조6053억원으로 충청북도가 제출한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수도권 집중 저지 · 불균형 해소 위해 역량 결집”

도의회, 수도권 규제완화 규탄 및 지역균형발전 촉구

충북도의회는 6월 20일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규탄 및 지역균형발전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도의회 차원의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기로 했다.

도의회가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고 있는 배경에는 2014년 통합 청주시가 출범하는 역사적인 시점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수도권 집중을 유발시킬 개발제한 구역(GB) 내 용도 제한 완화 정책을 시행한 정부에 대한 규탄과 충북도의 균형발전, 지방분권에 대한 염원과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고 도의회 차원에서 지역 역량을 결집하고 정부 정책에 대하여 주도적이고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 있다.

도의회는 이날 규제완화 정책 규탄 및 지역균형발

전 촉구 결의안을 통해 ▲수도권 과밀집중 및 지역 불균형 문제는 국가차원에서 시급하게 해결할 과제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관된 균형발전정책과 획기적인 지방분권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과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과 투자활성화라는 명분아래, 개발제한구역(GB)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수도권 집중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는 규제완화 정책을 시행한 것에 대한 지적에 이어 ▲도의회에서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균형발전 의무에 반하고 지방의 현실을 외면한 채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을 시행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역량결집 및 도내 균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해 나갈 것을 결의하는 것 등을 제시했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규탄 및 지역균형발전 촉구 결의문

충청북도의회는 2014년 통합 청주시 출범을 앞두고 있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역량 결집이 중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함께하고, 국민 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지역균형발전 실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다짐하며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수도권 집중을 유발시킬 규제완화 저지를 위해 정책 재검토를 수차례 건의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규제완화를 감행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수도권 집중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정책적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통합청주시가 출범하는 역사적인 시점에서 충북차원의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며, 도내 불균형과 비청주권 소외를 막기 위해 충청북도와 시·군이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적극 앞장서 노력할 것을 촉구하며, 충청북도의 올바른 균형발전 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해 협력하고 지원할 것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국가 및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열린 자세와 굳은 결의로 정파와 지역을 초월한 민·관·정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널리 확산시켜 나갈 것을 다짐한다.

2014년 6월 20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2013 회계연도 충북도·도교육청 결산검사

충북도 10건, 도교육청 6건 지적사항 도출

충북도의회(의장 김광수)는 지난 5월 14일부터 6월 2일까지 20일 동안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의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과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채무, 재산·기금, 금고 등에 대한 결산검사를 마쳤다.

하재성 도의원을 대표의원으로 최미애 의원과 임상혁 공인회계사, 박광석·현정환 세무사, 김대옥·지선영·김영구 전직공무원 등 총 8명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은 20일간의 심도있는 검사를 통해 개선과 우수사례를 포함 34건을 지적하였다.

이번 결산검사에서는 예산수립 시 사업대상자의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는 등 불용액의 과다 발생으로 효율적인 예산 운영의 부적정 및 사고이월처리 부적정 등 반복적인 문제가 지적되었고, 세월호 사고의 여파로 위험도로시설물 보수 및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개선조치 권고 등 안전에 관한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또 이번에 새롭게 결산서에 추가된 성인지 결산에 대한 집행실적 분석 및 성인지예산제도 운영에 대한 개선이 권고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9988 행복나누미 사업, 국고보조금 확충으로 인한 교육여건 개선 등 우수사례가 다수 발굴되기도 하였다. 작년 검사 때 지적되었던 공무원연금 기관부담금 개선 등 지적사항이 적절히 조치되어 예산절감의 효과를 나타낸 것도 주목할 점이었다.

하재성 대표위원은 “당초 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지와 재정운영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고민하여 결산검사를 진행하였다”며 “도출된 검사결과는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결산검사 결과는 6월말까지 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되며, 결산안은 9월 정례회 기간 중 의회의 최종 승인을 거치게 된다.

이번 결산검사에서 충청북도는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금 징수방안 강화 ▲위험도로시설물 보수 보강 미흡 ▲불용액 과다 발생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영 부적정 등의 지적사항과 ▲주요투자사업재원 효율적 운용방안 강구 ▲지방도 포장사업 추진방법 개선 ▲외자유치상품 화지원사업 분담금 납부 제도 개선 등의 개선사항이 지적되었고, ▲9988 행복나누미 사업 ▲효율적 채무운용을 통한 재정 건전화 추진 ▲내실있는 기금운용으로 우수기관 선정 등이 우수사례로 거론됐다.

충북도교육청은 ▲학교신증설비 사고이월 처리 부적정 ▲사업계획 변경·취소 및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사업추진 부적정 ▲직속기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가입(설정) 소홀(9기관) 등의 지적사항과 ▲교육비특별회계의 불합리한 규칙 개선 ▲이월사업비 표기 방법 개선 ▲교육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개선조치 예산반영 권고 등의 개선사항이 지적되었고, ▲자치단체 지원금 확충으로 교육여건 개선 ▲국고보조금 확충을 통한 기숙형중학교 설립 ▲인건비 불용액 감소로 재정운영의 건전성 제고 등이 우수사례로 뽑혔다.



△ 충청북도의회 결산검사위원들이 5월 27일 제천에 위치한 연금리조트~청풍대교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했다.

지역균형발전 정책 점검·주민 의견 수렴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유완백)는 6월 20일 회의를 개최하여 「수도권규제완화 정책규탄 및 지역균형발전 촉구 결의문」과 균형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심사하고 6월 20일 제330회 도의회 본회의 2차 회의에 상정하면서 실질적인 활동을 마무리하였다.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2012년 9월 21일 집행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실행력 확보, 의회 차원에서의 균형발전 정책 연구, 집행부 정책 건의를 위해 유완백 위원장을 비롯한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현재까지 활동해왔다.

유완백 위원장은 경제위기 극복과 투자활성화라는 명분아래, 개발제한구역(GB)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수도권 집중을 유발시키고 지역의 현실을 외면한 채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시행한 정부를 규탄하고 통합청주시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는 역사적인 시점에서 지역 역량결집 및 도내 균형발전을 위해 결의문을 채택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이어진 위원회 활동결과보고에서 강현삼

부위원장은 위원회가 약 2년 동안 회의 및 간담회를 통해 충북도 지역균형발전 현황 진단, 균형발전 사업 추진 상황 등을 모니터링 해왔으며, 지역균형발전 정책모니터링 연구 용역 등을 통해 지역 불균형 수준변화를 파악하고 도내 불균형 지니계수와 시군별 균형예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고, 권역별 토론회와 워크숍 개최, 균형발전사업 현장방문을 통해 공감대 형성과 현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 촉구 성명서, 건의문 채택, 규탄대회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였다고 하였다. 이러한 위원회 활동의 결실로 지역불균형 완화(지역불균형지니계수 하락), 지역발전특별회계시·군별 예산 비율 균형적 개선되고 있으며 2단계 균형발전사업이 주민 참여형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유완백 위원장은 앞으로도 우리도의 현실성 있는 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위해서 위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다고 당부했다.



△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6월 20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수도권규제완화 정책 규탄 및 지역균형발전 촉구 결의문」과 활동보고서를 채택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청원 · 청주통합지원특별위원회

명품 통합청주시 정착 위해 지속적 협조 주문

청원 · 청주통합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최미애)는 6월 12일 위원회를 열고 청원 · 청주통합추진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해 심사하고 6월 20일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산정하는 것을 끝으로 특위활동을 마무리했다.

청원 · 청주통합지원특위회는 지난 2012년 6월 주민투표에 의해 청원 · 청주 통합이 결정된 후 2012년 9월 21일에 통합 시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정치권 지원촉구 등을 위한 조정과 지원자의 역할을 위해 최미애 의원을 위원장으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약 2년간 활동했다.

지난 2년 동안 위원회는 회의 및 간담회를 통해 청원 · 청주 통합 준비 상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명품 청주시 출범을 위한 해결방안 등을 제시하였고, 구획정 및 청사 위치 선정 토론회 주민설명회, 워크숍(6회)을 개최하여 청사위치 선정의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통합청주시의 비전

을 주민과 함께 공유하고자 했다.

국비지원 성명서와 건의문을 채택하고 정부규탄 기자회견(5회)을 실시하여 예산 지원을 위반한 정부를 규탄하고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등 명품 청주시 출범을 위해 시민의 손과 발을 대신하여 달려왔다고 그간의 활동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이러한 위원회 활동의 성과로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이 조속히 의결된 것과 4개구 획정 · 청사 위치와 명칭 결정 및 안행부 승인을 얻어 내 두 개의 구청사가 신축예정에 있으며, 39개항 75개 세부사업의 상생발전 방안이 원활히 추진되는 등 청주시 출범을 위한 과제들이 순탄히 진행되고 있어 역사적인 통합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 등이 있다.

최미애 위원장은 “특별위원회의 실질적인 활동은 끝나지만, 앞으로도 명품 통합 청주시의 성공적인 출범과 정착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 청원 · 청주통합지원특별위원회는 6월 12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의회 정착 진력

지난 2010년 7월 7일 개원식을 갖고 출범한 제9대 충청북도의의회는 4년 동안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협조를 통해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를 기치로 전반기에는 김형근 의장을 중심으로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의회’, ‘도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목표로, 후반기에는 김광수 의장을 중심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와 ‘일하는 의회’를 목표로 의정을 이끌어 왔다.

제9대 충청북도의의회는 지난 4년간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고, 충북도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일들을 추진해 왔다.

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조기조성

이명박 정부 들어 당초공약 재검토로 논란이 된 과학비즈니스벨트의 충청권 조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쳤다. 도의회는 2010년 7월 ‘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조기 조

성 촉구’ 건의문을 통해 공약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국 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집중 배치 건의문’을 통해 정치적 논리를 벗어나 과학적 논리로 충청권에 집중적으로 배치해 줄 것을 천명했다.

세종시 정상 추진과 충북발전 모색

도의회는 제294회 정례회에서 세종시 건설의 정상추진을 위한 ‘세종시 정상추진 및 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10년 9월 16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이를 추진하기

위해 ‘세종시설치특별법 조기 제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열성적 노력을 기울였다.

도의회는 세종시의 정상적인 추진을 통해 충북발전의 계기를 삼는다는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충북도-도교육청 무상급식 합의 중재

전국 최초로 실시한 무상급식과 관련, 도의회는 유연한 협상력과 조정력을 발휘하며 의정활동의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를 얻었다. 도의회는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각을 보이자 협상지원단을 구성해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무상급식 비용분담 합의를 이끌었다. 이 같은 협상안을 기반으로 전국 처음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됐다.

서민경제의 안정화 추진

도의회는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지역물가 안정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다양한 교육지원과 인센티브 제공, 도시가스 공급지역 확대를 요

구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 ‘불평등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고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또한 지역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서도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지역별 교육격차 해소 주력

지역별로 교육적 격차가 큰 현실을 감안해 도의회는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다각도로 펼쳤다.

도의회는 '농산촌 작은학교 살리기'와 보육예산 지원 등에

대한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도의회는 '충청북도 농산촌지역 작은 학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결과 보고회를 열어 현실적인 대안을 연구하고,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등을 개최하며 교육격차 해소에 앞장섰다.

지역 균형발전 추진 강화

도계마을 육성사업 및 다목적 광장 추진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또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원 강화를 위해 국가 광역지역 발전특별회계 지역발전계정 중 매년 지원예산의 5% 이상

을 충청도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도의회는 이와 함께 지역별 특색사업 발굴,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 추진, 도농 상생발전 모색, 남·북부권 균형발전 등의 활동도 펼쳤다.

도민과 소통하는 의회 구현

도의회는 '소통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인터넷을 통해 본회의 진행상황을 생방송하고, 도의회 홈페이지 개설, 의정 60년사 발간 등을 추진했다.

또한 도민들의 참여 공간 확대와 인터넷 정보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도의회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설했다. 개편된 홈페이지는 각종 의정활동 상황을 도민들에게 가감 없이 제공하고 참여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청원·청주 통합 추진 앞장

도의회는 청원·청주 통합에도 앞장섰다. 도의회는 2012년 4월 30일 제309회 임시회를 열어 충청도가 제출한 '청주시·청원군 행정구역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의를 거쳐 도의회 찬성 의견을 확정했다. 도의회는 이와 함께 통합절차가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의회의 책무를 다하고 통합의 당위성에 대한 홍보와 주민 참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다.

국립암센터 분원 건립 추진

오송 입지가 결정됐던 국립암센터 분원 건립 백지화 발표에 도의회는 결의대회와 기관 방문, 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분원 건립의 당위성과 강력한 재추진 의지를 천명했

다. 2012년 3월 강력대처 천명 기자회견, 분원 재추진 촉구 결의대회, 시민단체와 연대투쟁 협의, 각 정당에 총선공약 포함 요구, 백지화 대응방안 대토론회 등 적극적인 대응활동을 벌였다.

활력있는 충북경제 매진

도의회는 충북경제를 살리고 발전시키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충북 경제자유구역 조기지정을 위해 충북 경제자유구역 조기지정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고 정

부가 2012년 6월 중에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즉각 개최하여 추가 후보지를 선정하라는 것과 이명박 대통령이 충북도를 방문할 때 충북 경제자유구역 지정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제9대 의회 주요 의정 1선

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조기조성

도의회는 이명박 정부 들어 당초 공약 재검토로 논란이 된 과학비즈니스벨트의 충청권 조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쳤다. 도의회는 2010년 7월 23일 ‘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조기 조성 촉구’ 건의문을 통해 “국토의 중심으로 교통 인프라가 뛰어나고 도시 기반계획이 완성돼 있으며, 인근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오송·오창단지 연계발전이 용이하다”며 “공약 이행 의지를 표명해 줄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2011년 2월 9일 ‘과학벨트 충청권 조성 사수 충북도의회 결의문’을 채택하고, 결의대회를 개최해 이명박 대통령의 백지화 발언 철회를 요구하고 과학벨트 사수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그해 4월 9일에는 4.19 기념일을 맞아 청주체육관에서 충청권 3개 시·도와 광역의회, 기초의회, 정치

권,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충청권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과학벨트 분산배치 음모 분쇄를 위한 500만 충청인 궐기대회’를 열어 과학벨트의 충청권 유치를 위한 총력투쟁에 들어갔다.

도의회는 대외적인 활동과 함께 대내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도 과학벨트 사수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했다. 도의회는 임시회는 물론 간담회 등을 통해 상황을 점검하고 도와 과학벨트 사수를 위한 대책을 긴민하게 협의해왔다.

4월 12일 열린 제299회 임시회에서 정책복지위원회 장선배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과학벨트 충청권 사수를 위해 끝까지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주문했고, 충청권 집중배치 건의안을 채택해 청와대와 정부, 정치권에 전달하기도 했다.

제9대 의회 주요 의정 2선

세종시 정상추진 충북발전 모색

도의회는 제294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건설의 정상추진을 위한 ‘세종시 정상추진 및 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10년 9월 16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이를 추진하기 위한 열성적 노력을 기울였다.

세종시의 정상화는 충남 뿐만아니라 인접한 충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감안해 도의회는 이에 대응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도의회는 특위 구성에 따라 세종시 건설 사업에 대한 도내 건설업체의 참여와 우리 도 배후지역의 발전전략을 모색했다.

또한 의회 차원에서 세종시 건설의 정상추진을 위한 개선 보완 방안을 제시하고 세종시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을 추진했다.

도의회는 2010년 10월 18일 세종시설치특별법 조기 제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또 충북도의원 일동은 세종시 편입 예정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사수와 지역주민간 갈등의 증폭을 해소하고 조속한 세종시 건설의 정상 추진을 건의했다.

건의한 내용은 ▲세종시설치특별법 조기 제정과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완벽한 정부직할특별자치시로 결정할 것 ▲사무의 범위는 광역자치단체로서의 기능을 완벽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 ▲관할구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편입 여부를 결정할 것 ▲불안에 떨고 있는 세종시 편입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정부차원의 발전 및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할 것 등이다.

제9대 의회 주요 의정 3선

충북도·도교육청 무상급식 합의 중재

전국 최초로 실시한 무상급식과 관련, 도의회는 유연한 협상력과 조정력을 발휘하며 의정활동의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를 얻었다. 도의회는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각을 보이자 협상지원단을 구성해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 같은 협상안을 기반으로 전국 처음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됐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무상급식을 두고 이견을 보인 것은 분담비율이었다. 도와 도교육청 간 분담비율은 3:7에서 5:5까지 큰 폭의 격차를 보여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양 기관의 협상타결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손문규 부의장, 최미애 교육위원장, 박종성 예결특위위원장, 심기보 정책복지위원장 등을 비롯한 정책복지 위원들로 협상지원단을 꾸려 중

재에 나섰다.

협상지원단은 지난 2010년 10월 11일 양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심도 있는 협의를 갖고 협상안을 제시했다.

도의회는 협상안을 기반으로 이시종 충북지사와 이기용 도교육감은 11월 7일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의 쾌거를 이루게 됐다.

이와 같은 결과는 도의회의 발빠른 중재 노력과 의정활동에 따른 것으로, 충북도는 전국 최초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일하는 의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충북도의회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던 무상급식 관련 갈등을 해소하면서 의정활동을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를 얻게 됐다.

제9대 의회 주요 의정 4선

서민경제의 안정화 추진

도의회는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도의회는 제303~304회 임시회에서 지역물가 안정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도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지원과 인센티브 제공을 주문하고, 도시가스 공급업체와의 협조를 통해 공급지역을 확대시킬 것을 요구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 ‘불평등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고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덧붙여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국익 차원에서 결코 성급하게 비준되어 불평등 협정이 돼서는 안되며, 먼저 피해를 입게 될 분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이 같은 내용의 건의안은 본회의 의결을 거친 뒤 청와대, 외교통상부장관, 국회의장,

한나라당, 민주당 등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했다.

이와 함께 도의회는 지역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해서도 적극 나섰다.

지난 2010년 10월 18일 도의회는 제295회 임시회에서 삼성테스코의 SSM 입점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해 관련기관과 기업 등에 보냈다.

결의문에서 충북도의 사업 일시정지 권고도 무시한 채 법망을 피해 직영점에서 가맹점으로 바뀌 기습 출점하려는 삼성 테스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차원에서 입점을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충북도에도 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으며 관련 법률제정 등 지역경제 보호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제9대 의회 주요 의정 5선

지역별 교육 격차 해소 주력

지역별로 교육적 격차가 큰 현실을 감안해 도의회는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다각도로 펼쳤다. 도의회는 ‘농산촌 작은학교 살리기’와 보육예산 등에 대한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제307회 임시회 기간 중 ‘충청북도 농산촌지역 작은 학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결과 보고회와 지역주민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도의회는 2012년 3월 2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충청북도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결과 보고회에서 지역적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교육과정 운영 및 지역 사회의 연계체제 구축 등 작은학교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또 4월 24일 ‘충청북도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

에 관한 조례’ 제정에 앞서 관련분야 전문가와 교육계 및 지자체 담당자, 학부모 등의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도의회는 지역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011년 5월 11일부터 20일까지 제300회 임시회를 열고 ‘충청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하고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했다.

6월 22일에는 ‘충청북도 농산촌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토론회를 개최해 농산촌지역의 심각한 지역불균형 발전과 교육격차 해소 방안을 모색했다.

보육예산에 대한 의정활동도 활발하게 펼쳤다.

제9대 의회 주요 의정 6선

지역 균형발전 추진 강화

도의회는 지역 균형발전 강화를 위해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보였다.

건설소방위원회는 제298회 임시회 기간 중 도계 마을 육성사업 및 다목적 광장 추진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또 민선5기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원 강화를 위해 국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발전계정 중 매년 지원예산의 5% 이상을 충북도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도의회는 이와함께 지역별 특색사업 발굴,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 도농 상생발전 모색, 북부권 균형발전 등의 활동도 펼쳤다.

제2차 위원회에서는 2011년 신규사업으로 청원군 강외면 정중리 일원에 IT, BT관련 생산 및 연구시설을 조성하는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재원조달을

위해 충북개발공사 사업비 2253억원 중 1500억원에 대한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를 받고 향후 공사채 발행에 따른 부채 전망을 면밀히 분석하여 경영수지 악화가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위원회는 또 4월 제299회 임시회 기간 중에 조례안 심사와 실국별 주요현안사항 보고들 듣고 충북내륙고속화도로 예정지구 및 혁신도시 현지를 확인했다. 또한 충북발전연구원 균형발전연구센터와의 간담회를 갖는 등 지역 균형발전 강화를 위한 활발하고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도의회는 이와함께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강력한 철회요구 방침을 채택했다.

제9대 의회 주요 의정 7선

도민과 소통하는 의회 정립

도의회는 ‘소통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인터넷 생방송, 도의회 홈페이지 개설, ‘의정60년사’ 발간 등을 추진했다. 도의회는 의정활동을 알리고 도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2011년 9월 20일부터 제303회 임시회와 본회의 진행상황을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하기 시작했다. 또한 도민들의 참여공간 확대와 인터넷 정보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도의회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설했다. 개편된 홈페이지는 각종 의정활동 상황을 도민들에게 가감없이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인터넷 생중계에서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이뤄지는 조례안 등 안전처리, 도정질문, 5분 자유발언을 비롯한 의원들의 의정활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볼수 있게했다.

도의회는 이와함께 도민 참여공간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도의회 홈페이지를 개편했다.

개편된 홈페이지는 역동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회 이미지를 그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새롭게 하고 각종 의정활동 상황을 도민에게 가감없이 제공했다.

도의회는 또 도의회 60년 발자취를 되돌아 보고, 역동적 미래를 위한 전기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의정 60년사’와 ‘사진으로 보는 의정 60년’을 각각 출간했다.

의회 개원 60주년을 기념해 발간한 두 책자 발간 기념식은 2012년 7월 2일에 가졌으며 이날 발간 기념식은 60년 연륜의 경험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제9대 의회 주요 의정 8선

청원·청주 통합 추진 앞장

도의회는 청주청원 통합에도 앞장섰다. 도의회는 2012년 4월 30일 제309회 임시회를 열어 충북도가 제출한 ‘청주시·청원군 행정구역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의를 거쳐 도의회 찬성 의견을 확정했다.

도의회는 2012년 4월 4번째 추진되는 청주청원 통합에 대해 만장일치의 찬성 의견을 제시해 적극적인 통합추진 의지를 천명했다.

도의회는 2012년 4월 30일 제309회 임시회를 열고 충북도가 제출한 ‘청주시·청원군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의를 거쳐 도의회의 의견을 확정했다.

또한 도의회는 청주 청원 통합은 주민이 주도하고 관이 지원하는 통합의 기본 원칙 아래 상생발전

방안에 대한 합의가 완료된 지역주민 숙원사업, 5개 분야 39개항 75개 사업에 대해 양 시군이 합의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의지가 성숙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6월 27일 청주 청원통합이 마침내 66년 만에 이뤄지게 됐다.

이날 청주 청원 통합을 위한 청원군 주민투표 결과 통합이 최종 확정된 것. 이로써 지난 18년 동안 진행돼온 통합 추진이 4번째 도전 끝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청주 청원 통합에 대해 도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도의회는 또 앞으로 통합절차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에 나서기도 했다.



제9대 의회 주요 의정 9선

국립암센터 분원 건립 추진

오송 입지가 결정됐던 국립암센터 분원 건립에 대해 정부가 백지화 발표를 하자 도의회는 이를 재추진 하기 위한 다양한 목소리를 냈다.

도의회는 결의대회와 기관 방문, 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분원 건립의 당위성을 알리고 재추진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2012년 3월 2일에는 강력 대처 천명 기자회견을, 3월 7일에는 분원 재추진 촉구 결의대회를, 3월 13일에는 시민단체와 연대투쟁 협의를, 3월 15일에는 각 정당에 충선공약 포함 요구를, 3월 22일에는 국립암센터를 방문해 재추진 촉구를, 3월 27일에는 백지화 대응방안 대토론회를 개최해 적극적인 대응 활동을 벌였다.

도의회는 2011년 7월부터 충남북, 대전시의회 공

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해 오송이 최적지임을 확인했다. 또 충북도, 지역정치권과 함께 암센터 분원의 오송 유치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정부가 용역의 목적과 내용에 부합하지 않은 엉뚱한 결과를 근거로 충북이 4년여에 걸쳐 추진해 온 분원설립이 백지화됐다. 도의회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분원 백지화를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지역 기관단체와의 연대 활동, 암센터 방문 등의 활동을 활발하게 벌였다.

도의회는 ‘강력 대처 천명’ 기자회견은 3월 2일 이뤄졌다.

도의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오송이 분원 건립의 최적지임을 확인한 바 있다”고 밝혔다.

‘분원 재추진 촉구’ 결의대회는 3월 7일 이뤄졌다.

제9대 의회 주요 의정 10선

활력있는 충북경제 매진

도의회는 충북경제를 살리고 발전시키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충북 경제자유구역 조기지정을 위해 도의회는 제311회 임시회에서 충북 경제자유구역 조기지정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건의문에서, 정부가 2012년 6월 중에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즉각 개최하여 추가 후보지를 선정하라는 것과 이명박 대통령이 충북도를 방문할 때 충북 경제자유구역 지정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도 제310회 임시회 기간 중 충북경제자유구역지정 등 현안에 대한 차질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또한 제311회 임시회 기간 중에는 충북경제자유

구역 조기지정 촉구를 건의하고 도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통해 도정 현안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전달했다.

13일에는 ‘충북경제자유구역 조기지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 추가지정 후보지 선정을 요구했다.

도의회는 또 제5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최종 결정되자 160만 도민의 승리라며 환영메시지를 전했다.

그동안 도의회는 2010년 2월과 2012년 6월 ‘충북경제자유구역 조기지정 촉구 건의문’을 청와대와 관계부처, 국회에 전달하는 등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운영위원회

제330·331 임시회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



△ 6월 20일 위원회를 열고 「제331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주요 현안을 심사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광희)는 제330회 임시회 회기 중 2차례 운영위원회를 열어 「제33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4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먼저 6월 11일 실시한 제1차 위원회에서는 「제33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을 심사하여 제330회 임시회 회기 운영을 6월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운영기로 했다.

이어 실시한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제도가 2014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별 위원정수와 상임위원회별 소관직무를 조정하고 위원장·부위원장 사고 시 직무대행 순서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했다.

주요내용은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일몰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교육위원회 위원 정수를 7명에서 7명 이내로

변경했다. 또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직무에 규제개혁추진단을 신설하고 위원장·부위원장 사고시나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 대행 순서를 연장자에서 최다선의원(2명 이상 그 중 연장자)으로 조정했다.

6월 20일 실시한 제2차 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도의회 상반기 회이운영계획 변경안」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처리를 위한 「제33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했다.

「제33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는 충청북도지사의 요구에 의해 제출된 「201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6월 23일부터 6월 24일까지 2일간 원포인트 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201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6월 23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후 최종 확정했다.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조례 제정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장선배)는 제330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회의를 열고 「충청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통해 유종의 미를 거두었다.

이번 심사한 「충청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기존에 외국인주민지원조례와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로 이원화 되어 있는 조례를 통합하여 지원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다문화가족 지원대상 범위가 「국적법」제3조에 따른 인지에 의해 국적을 취득한 사람까지로 확대되고 기존에 이원화 되어 있던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하게 된다.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행정규제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으며 「충청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초연금법」의

시행에 따라 조례제명 및 관련 조항을 정비했다. 또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도록 일부 조항들을 개정 정비한 것으로, 검토·심의결과 법리적, 내용적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돼 모두 원안대로 의결했다.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및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기구의 조직구성, 명칭, 직원 임용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고, 청소년상담, 활동진흥, 성문화 사업의 연계활동을 통해 효율적인 청소년 정책 수행 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심의 과정에서 조직 명칭의 중복성 및 기관장 명칭의 부적합성이 지적되어 수정 의결했다.

또한 제331회 임시회기 중인 6월 23일 위원회를 열고 여성정책관실, 기획관리실, 보건복지국에서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했다.



△ 6월 11일 「충청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 등 5건의 조례 제·개정안을 심사·의결했다.

행정문화위원회

제330·331 임시회

문화예술회관·충청북도 경관 조례 개정



△ 6월 11일 위원회를 열고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김희수)는 제330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위원회를 열어 김봉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북 문화예술인회관 운영 조례안」과 김형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먼저 김봉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북문화예술인회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에서는 앞으로 충북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에 도움을 주고 충북 문화 예술을 꽃 피우게 해줄 산실이 될 충북문화예술회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대로 의결했다.

김형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남녀 공무원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 삶의 질을 제고하는 내용으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조항들을 일부 개정하였으며, 「충청북도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에서도 경관 조성 사업추진 시 성별 수요조사를 통한 성별 특성, 성별 편익 차이 등을 고려하도록 경관사업 계획서 제출 시 성별 수혜자 수요조사를 계획서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두 조례 모두 양성평등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준수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 의결했다.

또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 시 민선6기 출범 이후에 정무부지사의 신규임용 시 까지 경제부지사가 정무부지사 역할을 하게 되어, 7월 1일자로 경제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변경하는 경과조치 등을 두어 수정 의결했다.

그리고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은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업무를 추진해 각종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개정사항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했다.

축산농가 재기 지원대책 마련 촉구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정현)는 제330·331회 임시회 기간 중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축산물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을 각각 심사·의결했다.

먼저, 6월 11일에 제1차 위원회를 열어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축산물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주요내용은 해당 조례의 모법이 되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이 현실에 맞게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닭과 오리의 도축 검사를 민간에서 하던 것을 공무원인 검사관의 검사를 받도록 개정하고 도축 수수료 징수근거 마련과 납부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향후 닭·오리의 도축에 필요한 검사관 및 검사원의 신규 채용이 필요한 실정이고, 시험장비·사무장비, 소모품 구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검토보고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닭·오리에 대한 도축검사 업무를 공무원인 검사관이 수행할 경우 인력증원이 필요한 실정인데 인력채용에 대한

계획과 대책은 무엇」인지 물었다.

이어, 23일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외에 대부분이 성립전 예산안을 심사한 것으로 경제통상국의 경우 ‘사회적기업 지역특화 사업개발비’ 등 2건이, 농정국은 ‘FTA 이행에 따른 한우 생산농가의 폐업을 위한 지원금’과 ‘축사시설 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경영안정 도모’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과 긴급 방역비 지원’ 등 총 9건이 심사안건으로 상정되었다.

정현 위원장은 예산심사에서 “지역별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공공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과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고통 받는 축산농가가 조속히 자립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축산농가가 슬픔을 딛고 재기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 6월 11일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축산물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전에 현안업무 간담회를 실시했다.

건설소방위원회

제330·331 임시회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 2014년 6월 23일 위원회를 열고 균형건설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이광진)는 제330회 임시회 기간 중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창과학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현안을 심사·의결했다.

6월 11일 실시한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현행 조례내용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심의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한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했다.

주요내용은 객관적인 지정기준 설정이 어려운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삭제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특정용도 제한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전문성과 투명성 강화하기 위해 위촉 요건을 충북도 소관 위원회 5개 이내, 타 자치단체 위원회는 3개 이내인 경우 위촉요건을 인정하기로 했으며 연임 횟수를 3회로 조정하고 청렴서약을 의무화 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운영 사항 개선으로, 신속·

명확한 안전처리를 위해 처리기한을 45일 이내로 단축 조정하고 회의록 공개시점을 조정하여 위원회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했다. 이어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운영·관리했던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이 2010년 1월 1일자로 청원군 하수도사업소로 업무 권한이 이관되면서 도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됨에 따라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했다.

그리고 제331회 임시회 기간 중에도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2014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사업에 대한 소요예산과 사업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해 예상치 못한 예산이 추경에 요구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위원회는 그동안 민의의 대변자로서 도민의 생활현장 속에서 수렴한 생생한 도민의 목소리를 충북의 각종 정책에 반영하는 등 열과 성을 다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충청북도의회 제9대 의정활동을 마쳤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하재성)는 6월 11일 제 330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를 열고,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주요 현안을 심사·의결했다.

먼저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에서는 통합 청주시가 2014년 7월 1일 부로 출범됨에 따라 청주시 읍·면 지역의 보충학습 교습과정의 학원시설 면적(60㎡)을 도내 타 시·군과 동일하게 한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이어 실시한 「충청북도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위원결정에 따라 중학교 특별장학생의 요건 및 선정에 관한 규정을 삭제 정비한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아울러 교육위원회는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충청북도교육청 보령교육원을 방문하여 지난 세월호 참사 이

후 학생수련시설의 안전성 제고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받고 수련시설을 살펴보았다.

이날 참석한 위원들은 교육청 및 교육원 관계관들에게 곧 재개되는 학생수련활동 실시에 앞서 학생 안전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주문하는 한편 보령교육원 인근 주요 해상체험장과 학생체험 시설을 시찰했다.

그리고 6월 23일 열린 제331회 임시회에서도 교육위원회를 열어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 제9대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활동을 마감하였다.

이날 제9대 의회 교육위원회 활동을 마치기에 앞서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앞으로 교육의원 제도 폐지에도 불구하고, 제10대 충청북도의회에서 의회와 집행청 간의 신뢰와 협조를 통하여 충북교육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기원했다. 또 충북교육청 관계관들이 제10대 의회 교육위원회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6월 18일 충청북도교육청 보령교육원을 방문해 관계관으로부터 운영상황을 보고 받고 시설을 점검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30·331 임시회

충청북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 6월 23일 위원회를 열고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제1회 충청북도 추경예산」을 심의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도지사가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벌였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478억3388만 3천원이 증액된 3조6052억 6991만원이다.

이중 일반회계가 478억3388만 3천원(1.6%) 증액된 3조1118억 2122만 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4934억 4868만8천원으로 변동이 없다.

지난 6월 13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6월 23일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의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는 기획관리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질의·응답이 오가면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계수조정을 거쳐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예산을 삭감하지 않기로 최종

의결했다.

6월 24일 개최한 제2차 본회의에서 임헌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각 상임위원회의에서 실시한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여 충청도지사가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했다고 심사결과를 보고했다.

충청북도의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은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해준 국고보조사업을 증액 계상하고 2014년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제고 등 성공개최를 위한 지원 사업비와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기초연금 추가 소요예산 확보 등 충북도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9대 의회 임기 마지막까지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특위활동을 마무리 했다.



현장중심 의정을 펼치겠습니다

제330 · 331회 임시회

충청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최미애 의원)

-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의 외국인주민 지원 관련 조례 통합 권고에 따라 기존 조례를 통합하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업무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내 명칭과 조직을 상위 법령과 일치 하도록 정비
- 청소년상담·활동진흥·성문화 사업 등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한 효율적인 청소년정책 수행 기반 마련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한시기구인 혁신도시관리본부의 존속기한 연장사항 및 그 밖의 정비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신설·강화규제를 억제하고 행정규제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근거 마련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상위법인「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게 현행 조례를 개정 정비하기 위함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운영·관리했던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청원군(하수도사업소)으로 권한이 이관되면서 그 기능을 상실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세월호 사고로 피해를 입은 희생자가족에게 세제지원을 통한 도움을 주기 위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의결을 얻어 도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임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김형근 의원)

- 남녀 공무원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 삶의 질 제고와 가정을 중시하는 도민적 정서를 고려하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조항들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충청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관련 상위법인「기초노령연금법」의 폐지와 더불어「기초연금법」의 시행에 맞추어 조례제명 및 상위법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에 따른 관련내용을 반영하여 도민들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원활한 안전관리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충북문화예술인회관 운영 조례안

(대표발의 : 김봉희 의원)

- 충북문화예술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충청북도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위헌결정(위헌결정 판결일 : 2012. 8. 23.)에 따라 특별장학생의 요건 및 선정 등에서 중학교를 제외하고 현행 조례의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장(제4조부터 제17조까지) 교육위원회 관련 규정의 유효기간이 2014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있어 이 법을 근거로 하여 규정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와 사무직원의정수 근거법령 정비
- 의회 사무직원의 정수 근거조례 정비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축산물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축산물 위생관리법」개정에 따른 수수료를 변경하고 수수료 납부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주시·청원군 통합 청주시가 2014. 7. 1.부로 출범됨에 따라 학원시설규모에 관한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충청북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충청북도 안전관리자문단 자격요건 및회의 개최시기 조정 등 운영상 필요한사항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규탄 및 지역균형발전 촉구 결의안
(제안자 :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

- 2014년 통합 청주시가 출범하는 역사적인 시점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수도권 집중을 유발시킬 개발제한 구역(GB) 내 용도 제한 완화 정책을 시행한 정부 규탄
- 우리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한 염원과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고 도의회 차원에서 지역 역량결집하고 정부 정책에 대하여 주도적이고 선도적으로 대응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장)**

- 충청북도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 별 위원정수를 조정하고
- 조직변동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소관직무를 조정하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장·부위원장 사고 시 직무 대행 순서를 개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한시기구인 혁신도시관리본부의 존속기한 연장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 연장을 위함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현행 조례 내용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및 토지이용규제심의회 권고 사항 반영과 운영상 필요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충청북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김형근 의원)**

- 충청북도 경관 조성 시 성별 수요조사를 통해 성별 특성, 성별 편익 차이 등을 고려하도록 함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를 준용하여 충청북도의회사무처에 두는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책정하려는 것이며, 교육부로부터 승인받은 일반직 4급상당 교육전문직원 정원을 해당기관에 책정하려는 것임



의정활동 이모저모



충청북도의회는 6월 17일 충남 당진에 위치한 현대제철을 방문해 현황을 듣고 시설을 견학했다.



충청북도의회 결산검사위원들이 5월 19일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해 2016년 완공예정인 영동군 황간면 기숙중학교 부지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했다.



김광수 의장이 6월 30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퇴임식을 갖고 도정 및 의정발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고 기념촬영을 했다.



충청북도의회가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의회교실」에 지난 5월 22일 영동중 학교와 괴산 칠성중학교 학생 70여명이 참가해 의정 체험을 했다.



김광수 의장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증평군 송산리 송티마을에서 감자밭 풀뽑기와 마밭 줄매기 등 봄철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충청북도의회는 5월 14일 의장실에서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8명을 위촉했다.



소득세 최고세율 과세표준 구간 조정

올해부터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 강화'라는 개정 취지로 올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은 소득세 최고세율인 38%구간이 종전 3억원 초과에서 1.5억원 초과로 개정되어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가 강화되었습니다.

좀 더 알기 쉽게 아래의 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 소득세 최고세율 과세

종 전		개 정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최고세율 과세표준 구간 조정 3억원→1.5억원 초과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4,600만원	15%	1,200만원~4,600만원	15%
4,600만원~8,800만원	24%	4,600만원~8,800만원	24%
8,800만원~3억원	35%	8,800만원~1.5억원	35%
3억원 초과	38%	1.5억원 초과	38%

근로소득 공제가 일부 조정

올해부터 종합소득세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맞추어 근로소득 공제가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일부 조정된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 근로소득 공제

종 전		개 정	
근로소득 공제		근로소득공제 조정	
총급여	공제율	총급여	공제율
500만원 이하	80%	500만원 이하	70%
500~1,500만원 이하	50%	500~1,500만원 이하	40%
1,500~3,000만원 이하	15%	1,500~3,000만원 이하	15%
3,000~4,500만원 이하	10%	3,000~4,500만원 이하	5%
4,500만원 초과	5%	4,500만원 초과	2%

2014.1.1. 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개정내용이 적용됩니다.

[자료제공 : 동청주세무서]

휴가철에 주의해야 하는 질병



내과전문의 **백희귀**
한국건강관리협회충북·세종지부

휴가철에는 특히 건강에 유의하여야 하는데 냉방시설을 갖추는 비율이 급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지만, 이로 인해 오히려 질병을 발생시키는 경우도 생긴다.

냉방병이 대표적인 질병이라고 볼 수 있다.

냉방병은 평소 생활 환경의 온도에 의해 체온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데서 오는 문제이다.

생리적 균형이 깨지게 되면 두통, 스트레스, 코막힘, 식욕부진 등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 대표적인 예이다.

실외온도차가 5도 이상 지속되는 환경에 오래 머물면 자율신경계 기능에 이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실내온도 차이를 5도 이하로 냉방하고, 직접 에어컨바람을 쐬지 않으며, 냉방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을 경우 얇은 가디건이나 소매가 긴 옷을 입거나 무릎담요를 덮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2주에 한번은 에어컨 청소를 해주며 2시간 냉방 후 10분의 환기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또한 휴가철에는 불가피하게 오랜 시간 동안 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이때 자세가 좋지 않으면 허리에 무리가 올 수 있다. 운전시 최대한 엉덩이와 허리를 좌석 깊숙히 밀착시켜 허리의 부담을 줄이고 등받이를 90도 가깝게 세우는 것이 좋은 자세이다.

허리가 아프면 가벼운 쿠션을 등 뒤에 넣는 것도 도움이 된다. 팔은 쪽 뻗는 자세보다 15도에서 30도 정도 굽히는 것이 좋다.

운전시간이 길어지면 운전 도중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좋다.

어깨와 가슴을 넓히고 허리를 뒤로 하는 스트레칭이 좋

다. 배와 허리를 앞으로 숙 내밀고 허리에 5초 동안 힘을 준다.

오른쪽 손바닥으로 머리 왼쪽 뒤통수를 잡고 45도 오른쪽 앞으로 잡아당겨 멈춘 동작을 8초 동안 유지한다. 반대 방향도 반복한다. 이 동작을 10회 정도 반복한다.

그 외에 열피로 열사병 등의, 강한 햇빛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모자와 SPF 15이상의 자외선 차단제를 외출 30분 전에 발라주고 2~3시간에 마다 덧발라준다. 오전11시부터 오후2시까지의 강한 햇빛을 피해야하고 탈수를 예방하기 위해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 준다.

무더위는 노약자 뿐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자칫 건강을 잃을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유난히 더위를 탄다거나 항상 피곤을 느끼는 직장인들이나 학생들에게 휴가와 방학은 건강관리에 신경을 쓸 수 있는 더 없이 좋은 기회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충북세종지부 백희귀부원장은 “여름철을 건강하게 나기 위해서는 올바른 식습관,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 선 배 의원
(정책복지위원회)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지난 4월 16일은 참으로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차갑고 어두운 통곡의 바다에 채 피지도 못한 꽃송이들을 묻었습니다.

살아 있어만 달라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이내 슬픔과 비탄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린 생명들을 위해 아무것도 해 줄 수 없다는 무력감에 모두가 괴로웠습니다.

온 국민들에게 깊은 슬픔과 상처, 절망을 넘어 분노를 안겨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이제 두 달여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지방선거가 있었고 월드컵 축구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세월호 참사가 국민들의 관심영역에서 점차 멀어지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혹자는 세월호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월호 사건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수백 명의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는 우리나라가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대명제를 던져 줬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인과 대처과정에는 우리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먼저, 돈과 물질 추구하는 끝없는 탐욕은 우리의 생명을 담보하는 안전마저도 내팽개쳤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이 희생되더라도 돈이 되면 그만인 세상이 됐습니다. 경제적인 말로 포장하면 속도와 경제성, 효율성이 지배하는 사회가 된 것입니다.

이를 가능하게 뒷받침해 준 것은 권력이고, 행정이고, 사법이고, 사회적인 이익집단의 연합이라고 할 것입니다. 폐기 시한을 앞두고 세월호의 운항 수명을 연장해 준

것이 정부입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붙잡히면 그와 연루된 정관계 비리가 또 얼마나 많이 터져 나올지 모릅니다.

또 다른 부문은 정부의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대처입니다. 안전조치를 잘 한다고 해도 사고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고에 대응해 적절하게 조치를 잘 하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대처는 그야말로 후진국형 모델이 될 것입니다. 초동대처가 부실해 살릴 수 있는 생명을 단 한 명도 구해내지 못했습니다. 두 달이 됐는데도 아직도 12명의 실종자가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도 요원합니다. 한 점의 의혹도 남김없이 진상을 낱알이 밝혀내야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까봐 걱정입니다.

세월호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국민 모두가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려면 먼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선행돼야 합니다. 그 바탕 위에서 우리사회 각 부분의 변혁이 추진돼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돈과 물질보다 소중한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복원시켜 나가야 합니다. 여기에다 모든 분야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투자를 확대해야 합니다. 안전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는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을 넘어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다짐입니다.



제9대 의회 마지막 ‘충북의정’ 편집회의를 마치며...



김 영 주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제9대 충북도의회 출범과 함께 발간한 제205호 ‘충북의정’이 4년간의 여정을 마치고 이번 제229호를 마지막으로 역사가 되어 자료로 남게 되었습니다.

제9대 충북도의회 간행물심의위원회는 정례회·임시회 주요안건, 각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활동, 회기·비회기 중 의정활동, 행정사무감사, 대집행부질문, 5분발언, 의원논단, 의정일기 등 도의회가 실시한 사안들을 ‘충북의정’에 정성껏 담아 도민께 전달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4년의 임기동안 많은 역할을 대해왔지만 의회소식을 도민께 전하며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간행물편집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했다는 것이 무엇보다 보람 있고 가슴 뿌듯한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충북의정’을 통해 도민 여러분께 도의회의 활약상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장선배 전반기 간행물편집위원장과 송창희, 조성민, 조성옥, 이병재, 이흥신 편집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위원님들 노력으로 ‘충북의정’이 더 빛났고, 도의회가 도민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제10대 도의회가 출범합니다. 더욱 알찬 내용으로 의회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힘 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간행물편집위원장 김영주 의원





“충북도의회는 항상 열려있습니다”

● 인터넷생중계 : <http://assembtv.cb21.net>

● 트위터 : <http://twitter.com/#!/chungbuk/assem>

●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cbassembly>

청원안내

■ 청원서 제출방법

- 도의회에 청원을 하려면 도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 제출
- 청원서에는 청원인 주소·성명(기재), 서명(날인)
- 청원서에는 청원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음

-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청원 소개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청원서 문의

- 의사담당관실 : 043)220-5151~5155

민원안내

■ 진정서 등 제출

- 진정서는 청원서 외에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인터넷 민원 등을 말함
- 진정서는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진정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

■ 제출방법

- 우 편 : 360-76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의사담당관실
- 인터넷 : <http://assemb.cb21.net>의 「진정/민원」에 글쓰기
- 팩 스 : 043) 220-5159

방청안내

■ 방청권 교부

- 의회사무처에서 교부받은 방청권에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등을 기재하여 신청
- 방청시 방청인이 지켜야 할 사항 준수

■ 방청권 신청

- 의사담당관실 : 043) 220-5155



충청북도의회

<http://assemb.cb21.net>